

“교통카드로 무료환승을”

완주군, 내달 20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카드 이용 홍보

새롭게 마련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2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완주군이 주민들의 무료 환승 혜택을 위한 교통카드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노선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홍보는 물론, 교통 도우미 형태의 '군민 행복추진단' 구성 및 현장 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군은 60년만의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지·간선제가 확정돼 다음달 20일 월요일 첫 차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선 개편은 전체 122개 노선 중 56개 노선은 현행 유지, 34개는 부분 개편, 30개는 중복노선 폐지가 각각 이뤄지는 대신, 전주시내 9개 노선과 완주군 지·간선 14개 노선이 신설됐다. 이로써 전체 노선은 116개로 줄어든

다. 또한 지난 연말 '전북도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금'이 조정돼 이달 15일부터 기본요금에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같은 노선 개편 및 요금 인상에 따라 교통카드를 활용한 무료 환승이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이용 불편 최소화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많은 주민들이 교통카드를 통해 무료 환승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특히 관내 100여개의 편의점 등과의 협조해 교통카드 충전기 주변에 소형 홍보물을 비치하는 한편, 외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부착해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도모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성공적인 노선 개편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우선 시행 지역인 삼례, 봉동, 이서 지역의 마을

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시내버스 차량번호, 노선도, 배차시간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을 대거 비치할 방침이다.

또한 도우미 성격의 '군민 행복추진단'을 신속히 구성한 뒤, 6월말까지 터미널 및 환승센터, 승강장 등에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이후에 건설교통과장은 “노선개편 핵심사항은 관내 전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신규노선 운행과 완주 내부 지역간 연결 노선을 신설과 지·간선제 시행지역 주민요구 시간대를 한정해 마을에서 전까지 직통 운행하는 등으로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도 어르신과 일반인이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무료환승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와 독려로 교통카드를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착착’

가스공사 420억·군 20억 확보 배관공사 순차적 진행

진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사업을 착공해 2018년도 11월부터는 진안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년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진안군이 도시가스 공급 지역으로 포함되어 2015년 전라

북도과 진안군, (주)진안도시가스가 공동 협력 체결을 통해, (주)진안도시가스가 진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지정 되어 2018년 10월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었다.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중 한국가스공사가 입찰과 진안군 25km 주배관공사 420억원의 국비를 투입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공급배관공사는 진안군에서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군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산업시설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복지 사각 지대 해소, 연료비 절감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으로 1세대 당 월 6만4,000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로 3,000세대가 연 23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용득 장수군수, AI 거점소독시설 방문

최용득 장수군수의 한영희 부군수, 한국의 기획조정실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 거점소독시설 방역 현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장수군은 지난 11월부터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했으며, 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지난 12

월 15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가금류(家禽類)AI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는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인공공통감염병이다. 이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병원성 AI발생국을 방문한 사람이나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분변, 계란껍질 등에 의해 유입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종계장 독립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 실시할 계획이며, 가금류 사육종장 주변 정기적 방역활동 추진을 주 1회 공동방제단을 구성한다. 또한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소독지원 8개소를 지정, 주 2회 공동방제단 활동을 AI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기술력 향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결

완주군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의식과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달 9일 고추 교육을 시작으로 2월 8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11개 품목, 8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새해농업인 실용기술 교육은 수도작 중심의 일관된 읍·면 순회 교육을 지양하고 다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지역 여건에 맞게 사전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품목중심의 집합형 교육으로 추진된다.

또한 국내외 농업여건과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고추, 생강, 마늘, 양파, 복숭아, 포도, 딸기, 농업미생물 활용 등 작목별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보는 질의응답 위주의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핵심인원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인문학 과정을 편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중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년

도의 영농문제점이 되돌아보고 새해 시작 시점에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새해 실용화 교육을 잘 활용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실버태권도시범단원 ‘한자리에’

군,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공연·환경정비 등 공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이하 2017 무주대회) 관련 실버태권도시범단과의 간담회가 지난 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회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역할을 되짚어 보다 만족스러운 손님맞이를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실버태권도선수단 2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6월 22일부터 개최되는 2017 무주대회의 개요를 비롯해 △조정위원회 현황, △개막식 등 주요행사, △운영 및 경기지원, △문화공연 등 대회를 축제화시키기 위한 계획, △관람객 유치대책, △환경정비, △의료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공유됐으며 황정수 군수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는 무주를 세계 속에 알리고 성지로서 태권도원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면서 “지

역의 어르신들이고 또 시범단 활동을 하시는 태권도인으로서 대회를 알리는 일부터 내 집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을을 가꾸는 일까지 솔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무주군실버태권도시범단원들은 “일주일에 2번 씩 꾸준한 연습을 하고 면민의 날을 비롯해 우리 군 관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서 시범을 보이는 순간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며 “지금까지도 태권도와 태권도원 활성화, 2017 무주대회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활동하고 손님맞이 준비에도 작은 힘이나마 크게 보태겠다”고 전했다.

2010년에 출범한 무주군실버태권도시범단은 29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그동안 읍면 민민의 날을 비롯해 반달불축제 등 행사에 참여해 품새와 격파 시범을 보이는 등 태권도와 태권도원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단원들은 모두 3·4단의 실력을 갖춘 유단자들로 2015년에는 제8회 국무총리기 태권도품새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주거환경개선 추진

빈집정비·주택개량 접수

무주군은 빈집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빈집정비 물량은 80동(슬레이트 지붕 빈집 70동, 일반지붕 빈집 10동)으로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등이다.

무주군은 1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주택노후도와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빈집면적, 농촌 경관과 조화 등을 고려해 2월 초 최종 정비대상을 선정할 방침으로 3월 중 폐기물처리과정과 빈집철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도 80동으로 2월까지 농가주택 대지 소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

은 귀농·귀촌인과 도시거주자, 무주군민 중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다.

단 1가구 2주택은 안되며 도시에 1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농가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무주군민이 기존 주택에 거주하며 농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준공 검사 후 기존 주택을 철거해야 한다. 농가주택 완공 후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5년 간 재산세도 면제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진호 담당자는 “오래돼 낡고 공익상 유해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데 큰 목적이 있다”며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완벽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 나서

4억4000만원 투자 골목형 시장 육성 추진

완주군이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완주군은 봉동 생강골시장을 지역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특성화상품 개발 및 시장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생기 있는 시장, 작지만 강한 시장’을 위한 봉동 생강골시장을 비전으로 ▲특화환경 조성 ▲상품특화 지원 ▲디자인특화 지원 ▲문화·ICT 특화 지원 ▲교육 및 이벤트, 행사, 홍보 등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군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판매장 조성, 협동조합의 설립, 시장특화환경 조성, 프리마켓 및 생강 테마축제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시장 상인 및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에 이월부터 시장특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장 공공간판 정비와 공동판매장 등의 시설을 공사가 진행되고, 공동기획상품의 개발에 따른 프리마켓 행사가 10일과 20일, 2월 10일에 열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봉동 생강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 등 사업비 15억원을 확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 정보화마을, 사과나무 분양

장수군 정보화마을이 장수 명품사과나무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장수 별해는마을과 '장계 품물동동정보화마을'이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농촌현장체험과 농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양금액은 홍로와 하니, 후지를 각각 30kg보장(10kg 기준 3박스)에 10만원씩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상품 소진시까지이며,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양된 사과나무에 분양회원의 이름, 주소가 기록된 이름표가 부착되며, 사과나무의 성장과정을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지역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진안군은 지난 6일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산물 판매업체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4가지 과일(수박, 사과, 토마토, 메론)의 구입실적에 대해 시범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진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일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으로부터 과일류를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매업이다. 해당 읍면에 장려금을 신청한 판매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지역농산물 구입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분기별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 아동 성폭력 예방 '톡톡(TOC TOC)' 한 성교육

무주경찰서(서장 지역민)는 지난 6일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톡톡(TOC TOC)'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톡톡(TOC TOC)' 프로그램은 저학년 학생들이 성폭력이나 유괴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과 게임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부제이다.

이번 교육은 허용되는 접촉과 허용되지 않는 접촉, 지켜야 할 비밀과 지키지 않아 되는 비밀을 구분해 아동들이 자유롭게 보호자에게 자신의 일과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성폭력 예방에 대하여 이야기만 듣는 것 보다 보드 게임을 하면서 참여식으로 진행하니 집중도 잘되고 어려운 개념도 쉽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사와 유경중 대표 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진안홍삼사와 유경중 대표가 지난 6일 진안사망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유경중 대표는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를 이루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섰으면 하는 생각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